

문집과 인쇄, 글과 죽음

오영균

애리조나 주립대학 (미국)

“텍스트의 사물성死物性이, 살아있는 인간의 삶에서 유리돼 버린다는 것이, 시각 속에서 뻗뻗하게 고정돼 버린다는 것이, 되려 텍스트의 지속성과 살아있는 독자들에 의해 끊임 없이 무한한 삶의 맥락 속으로 부활할 가능성을 마련한다. 파라독스는 거기에 있다.”

“The paradox lies in the fact that the deadness of the text, its removal from the living human lifeworld, its rigid visual fixity, assures its endurance and its potential for being resurrected into limitless living contexts by a potentially infinite number of living readers.”

(Ong 1977, pp. 230–71).

- 날 글(live text)과 살아돌아다니는 글(living texts)
- 글의 가소성可塑性:
인쇄까지의 시간 (time to printing)
담론의 일관성 (consistency of discourse)
- 인쇄와 출판 (printing and publishing):
독자의 다중성

조선의 사후문집死後文集 (posthumous anthology)

- 현전하는 전근대 한국 전적의 40%가 문집
- 문집의 99%는 조선시대(1392–1910)에 간행되었고, 조선문집의 86%는조선 후기 (17세기 이후)에 나왔다. (신승운 2001)
- 대부분의 문집은 저자가 죽은 후에 간행된 사후 문집이다. (김수진 2012, 장유승 2021 등)

- 사후 문집은 적어도 저자 사후 60-100년 이후에 간인된다.

문집간행시기 ➡ ↓저자생존시기	15c 이전	15c	16c	17c	18c	19c	20c
before 15c	14	13	1	4	3	8	2
15c		12	44	14	13	14	6
16c			7	137	85	91	19
17c				19	144	74	35
18c					21	106	36
19c						7	23

(김수진 2013, 355)

“우리 동방은 풍속이 질박하고 일 벌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탓으로 문인들이 저술하는 일이 있어도 세상에 간행하는 경우는 보기가 드물었다. 그런데 근래 문교文教를 숭상한다며 문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유집遺集이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 성대한 일이라고 말할 만하다. 그러나 이를 찬찬히 살펴보면 그들 모두가 그럴 만한 사람들은 아니다. 대체로 그 가문이 대대로 융성하여 현달顯達하고 그 후손들이 잘만 이어주면 절양이나 황과 같은 속요俗謠들도 소호 같은 성왕의 음악과 섞여 울리게 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목판의) 나무에는 재앙이고 종이값만 올라간다.”

我東俗椎鮮好事，文人述作，罕有鋟行於世者。近歲稍稱右文操觚家，競出遺集，可謂盛矣。然徐而察之，未必皆其人也。蓋其家世隆顯，胤胄趾美，則雖折楊皇芻，亦可以混響韶護，咄嗟之頃，能令木災而紙貴。 (張維，1587–1638)

문집이라는 장르

- 별집別集 (개인문집)과 총집總集 (여러사람의 글을 모은 문집) (阮孝緒 [479-539], 七錄)

- 별집에서 문집으로

“(별집은) 동한東漢 대에 시작됐다. 굴원屈原 이래 글을 짓는 문인의 수는 많아졌으나 그들의 뜻과 이상은 같지 않았고, 풍류는 제각각이었다. 후대의 군자들이 그들의 체신과 처세를 관찰하고 마음과 영혼을 보고자 (그들의 글을) 따로 모아 집集이라고 명명했다.” 蓋漢東京之所創也。自靈均已降，屬文之士衆矣，然其志尙不同，風流殊別。後之君子，欲觀其體勢，而見其心靈，故別聚焉，名之爲集。” (隋書 經籍志)

- 문집은 그가 쓴 글을 가지고 그 인물(其人)의 총체를 담아(embody) 드러내는 것이다: 심미적 의식, 도덕 수양, 사회적 참여 (aesthetic pursuit + moral integrity + social embeddedness)

문집의 제작과정

1. 계획/준비

- (1) 문집제작 발기 제작, 준비위원회 조직
- (2) 제작과정을 주도할 책임자 선발, 역할 배당 (爬任)
- (3) 원고 수집 (수고, 편지, 묘도문자 등)
- (4) 서문, 연보, 행장 등 청탁
- (4) 비용 마련 및 모금

2. 원고 정리 및 판각 원고 준비

- (1) 탈초, 원고 선정, 윤문
- (2) 확정된 원고(定稿)를 정서한다.

3. 판각과 인출

목판에 새김 > 교정쇄 찍음 > 최종 인출 > 장정 제본

4. 배포

수록할 글들의 필자와 배열

서문/발문 (序/跋)

저자의 제자, 동지, 후손

시 詩

부 賦
시 詩
사 詞

문 文

산문류 文, 辭
논설류 論, 說, 記
서간류 書
상소문 류 疏, 奏
성명서 류 表, 啓
서/발 序, 跋, 題
추도문 류 贊, 吊
묘갈문 류 碑, 銘, 碣

저자

행적

연보 年譜/행장 行狀

저자의 제자, 동지, 후손

문집 원고의 교정과 정화淨化 sanitization (심경호 2014)

1. 불교와 연루될 글 삭제
2. 장르와 문체의 균형
3. 상소문이나 대책문對策文 같은 “대문자大文字” 포함
4. 조선식 한문투나 이두식 문장은 윤문
5. 중국에 사행을 다녀온 사람은 중국문인들과 교류한 글 포함. 가능하면 그들에게 서/발문 요청.

그리고 물론...

1. 한문 문법이나 문체 오류는 다듬고 고침
2. 탄핵 등 정치적·사상적 문제가 있는 인물과의 교류 흔적은 삭제

인쇄 부수와 배포

- 문집은 비매품이고 가족/문종과 친지들에게만 나눠준다.
- 대개 50-60부 내외를 찍으며 100부 이상을 찍는 경우는 드물다. (장유승 2021)
- 비용은?
예) 최흥원崔興遠 (1705-1786)의 「백불암집百弗庵集」
18 권卷 (7 책冊), 목판 250개 소요
인출비용 (간역기사刊役記事 근거): 805량 (= 약 2억원) (설석규 2005)
- 인쇄(printing)와 출판(publishing)

문집 간행과 장례

1. 초종初終

cf. 문집 간인 계획/준비

- (1) 임종시 가족과 친지들에게 기별
- (2) 상례를 주관할 호상護喪을 선정하고 역할을 정함
- (3) 시신 이동
- (4) 장례 제수 준비

2. 염殮

cf. 원고 정리, 윤문, 정서

3. 입관入棺 - 발인發引 - 성분成墳

cf. 판각, 인쇄, 장정

- (1) 입관: 시신을 관에 모심
- (2) 발인: 시신을 못자리로 옮김
- (3) 성분: 시신을 매장하고 분묘 완성

4. 성묘

cf. 배포

인쇄와 죽음

- 인쇄이전의 살아돌아다니는 글
- 개관논정蓋棺論定과 "Put a nail on the coffin"
- 불후不朽, 죽어 스러지지 않음, 글의 미이라

- (해외) 한국학과 데이터베이스 혁명
- 데이터의 다층성과 역사성
- 유서類書 효과: 글의 평면화, 편린화, 정보화